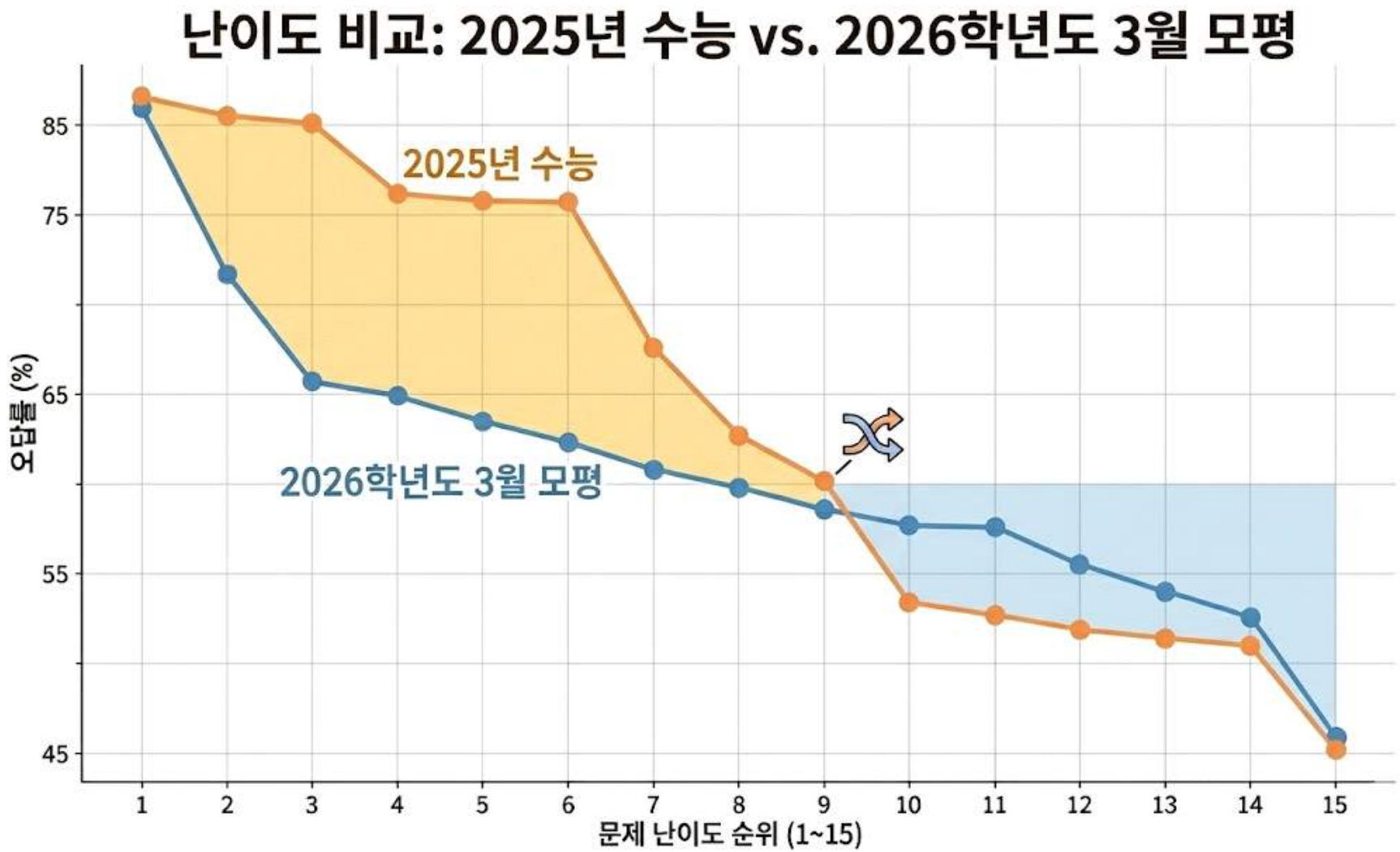

2026
3월 영어모의고사 해설
LOGICAL MIND



이번 3월 영어는 쉽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풀 수는 있는데 편하게 풀 수는 없는 시험이었다. 21번 이후 독해 파트에서 추상도와 개념 밀도가 한꺼번에 올라가며 학생의 독해 체력을 정면으로 측정하는 시험이었다.

1. 난이도: 25년 수능과의 비교



25년 수능은 상위권 오답 문항들의 오답률이 훨씬 높았다. 특히 1~6위 구간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즉, 어려운 문항 몇 개가 강하게 학생들을 혼든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6년 3월 모의고사는 특정 몇 문항이 유독 폭발적으로 어려웠다가보다, 중상위권 난도의 부담이 시험 전반에 넓게 퍼져 있는 형태에 가까웠다. 오답률 곡선이 25년 수능보다 완만하게 이어진다는 것은, 학생들이 몇 개의 킬러 문항에서만 크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 문항에서 지속적으로 판단 부담을 느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시험 전체의 체감 측면에서는 이번 3월 역시 상당한 압박감을 주는 시험이었다. 특히 학생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어려운 한두 문제보다 계속 애매하고 계속 걸리는 문제들이 누적될 때 시간이 무너지고 멘탈이 흔들린다. 이번 시험이 바로 그런 구조를 보여주었다.

21~24번에서 이미 개념 독해를 요구하고, 31~34번 빈칸은 추상명사와 논지 압축 능력을 보며, 36~39번은 연결어만 쫓아서는 풀 수 없고 내용 구조를 잡아야 했다. 마지막 41~42번도 blind spots, absences, distortions, discordant 같은 비평 어휘를 전면에 내세우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번 3월은 단순히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 실전 운영 능력과 독해의 안정성을 함께 요구한 시험이었다.

2. 출제경향

첫째, 추상 인문 지문의 비중이 높았다.

단순 정보 파악형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잡아내는 힘을 요구했다. 음악을 기술적 진보의 논리로 읽는 21번, translation이 작품의 낯섬을 복원한다는 24번, history를 facts가 아니라 discipline으로 보게 하는 32번, building을 human action의 extension으로 이해하게 하는 33번이 대표적이다.

둘째, 선지 판단이 더 정교해졌다.

이번 시험은 키워드 하나가 맞다고 정답이 되는 방식이 아니었다. 지문이 말하는 중심 개념을 선지 수준에서 정확히 재진술한 것을 골라야 했다. 즉, 해석보다 재구성의 비중이 커졌다.

셋째, 순서·삽입도 기능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다.

36~39번은 물론 단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념 흐름을 따라가야 풀리는 문제였다. 이는 앞으로 순서·삽입을 단서 찾기 게임처럼 공부하면 한계가 분명하다는 신호다.

넷째, 어휘·어법 역시 문장 단독 판단보다 문맥 전체를 보는 힘을 요구했다.

30번, 41~42번은 단어 뜻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글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의미를 끌고 가는지를 읽어야 했다.

3. 앞으로의 학습방향

이제부터 영어 공부의 문장을 해석했다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이 글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까지 고민해야 한다.

첫째, 추상명사 독해 훈련이 필요하다.

novelty, discipline, omission, choreography, accountability, distortion 같은 단어를 그냥 뜻으로만 외우지 말고, 글 안에서 어떤 논리 기능을 하는지까지 익혀야 한다.

둘째, “문장 해석” 뿐만 아니라 “논지 압축” 훈련이 필요하다.

빈칸 앞뒤를 읽고, 필자가 결국 무엇을 정의·평가·귀결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셋째, 순서·삽입은 기능어와 내용어를 함께 봐야 한다.

접속사, 대명사, 반복어만 보지 말고, 앞 문장의 핵심 개념이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되는지를 잡아야 한다.

넷째, 어려운 시험일수록 시간 운영이 더 중요하다.

이번 3월 같은 시험은 21번 이후에서 멘탈이 흔들리기 쉽다. 한 문제에 오래 매달리면 뒤에 있는 정리형 문제까지 무너진다.

21. 밑줄 친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 brilliant musician can in fact be an innovator without strictly speaking being an inventor. In such cases, those who expect “great discoveries” will be disappointed. Let there be no doubt: the eager need for novelty, so characteristic of the escalating modernist auction, involves the idea that a musical act is a thing, in which case, music is no more than technique, technique alone. And just as technique is the consequence of an indefinite process of perfection—with each automobile or kitchen appliance show introducing what is new and improved in comparison to last year’s—so never-ending progress shall be the law of music. Farther, faster, more powerful! In this arms race, each new music, breaking its predecessor’s records, offers itself as the last thing in modernity; and each musician, forcing predecessors into the category of the unfashionable and outmoded, claims the patent on the invention. In an era where pastiche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have become quasi-universal, musicians owe it to themselves to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

* pastiche: 모방작 ** quasi-universal: 준(準)보편적인

- ① reproduce the signature style of master composers faithfully
- ② admit that the quality of artistic output is not subject to temporal factors
- ③ embrace the prevailing focus on technically demonstrable novelty and formal progress
- ④ question the impact that music has on maintaining aesthetic standards and cultural identities
- ⑤ distinguish the fundamental independence musicians have on their craft from the principles of science

뛰어난 음악가는 엄밀히 말해 발명가가 아니고서도 사실 혁신가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위대한 발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해 두자면, 점점 고조되는 현대주의적 경매의 전형적 특징인 새로움에 대한 열렬한 욕구는 음악적 행위가 하나의 '사물'이라는 관념을 수반하며, 이 경우 음악은 기교에 불과한 것, 단지 기교일 뿐이다. 그리고 각 자동차나 주방용품 전시회가 작년과 비교하여 무엇이 새롭고 개선되었는지 소개하고, 기교가 무기한 완성 과정의 결과물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끝없는 진보가 음악의 법칙이 될 것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이 급격한 확장 경쟁 속에서 각각의 새로운 음악은, 이전 것의 기록을 깨트리며, 자신을 현대성의 최신형으로 내놓고, 각각의 음악가는 전임자를 유행에 뒤떨어지고 구식인 범주로 몰아넣으며, 그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주장한다. '과학적 연구'의 모방작이 준(準)보편적이 된 시대에, 음악가는 자신을 위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음악가가 발명가가 아니더라도 혁신가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하여, 현대주의의 영향 아래 음악이 단순한 '기술(technique)'로 전락하고 있다는 일반적 비판(General)을 제시합니다. 이후 음악을 자동차나 주방 가전의 발전 모델에 비유하며, 음악가들이 과거의 것을 구식으로 만들고 새로운 '특허'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술 경쟁 양상(Specific)을 묘사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파악 / 비유적 의미 추론

밑줄 친 "become 'researchers' just like everyone else(다른 모든 사람처럼 '연구자'가 된다)"는 음악가가 예술가로서의 본질보다, 과학적 조사(scientific investigation)를 모방하여 기술적 참신함과 진보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고 있음을 비교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새로움과 형식적 진보에 집중한다는 ③번이 정답이 되는 패턴입니다.

3. 낱어도

상 (현대주의 음악에 대한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어조를 띠고 있으며, 'scientific investigation', 'patent', 'modernist auction' 등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기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입니다.)

4. 해설

Step 1. [첫 번째 제시된 내용 파악]

지문은 현대주의의 가속화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음악적 행위를 하나의 '물건(thing)'으로 간주하며, 그 결과 음악이 오직 '기술(technique)'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음악적 가치가 예술적 깊이가 아닌, 기술적 완성도와 참신함이라는 잣대로 평가받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Step 2. [핵심 논리 전개 파악]

핵심은 음악의 발전 모델이 가전제품의 기술적 진보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매년 성능이 개선되어 나오는 자동차나 주방 기기처럼, 음악 역시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라는 법칙 아래 무한한 진보를 강요받습니다. 음악가들은 이전 세대의 음악을 '유행이 지난'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는 '군비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연구자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 연구처럼 입증 가능한 기술적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데 몰두하는 음악가의 변질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Step 3. [선택지 비교]

- ① reproduce the signature style...: 거장들의 스타일을 충실히 재현한다는 것은 본문의 '과거를 구식으로 몰아넣는다'는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 ② admit that the quality of artistic output is not subject to temporal factors: 예술적 결과물이 시간적 요인(시대적 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의 핵심 논조(현대성이라는 시간적 경쟁)와 맞지 않습니다.
- ③ embrace the prevailing focus on technically demonstrable novelty and formal progress: '기술적으로 입증 가능한 참신함과 형식적 진보에 대한 유행하는 집중을 수용하다'는 뜻으로, 본문의 기술 경쟁 및 연구자 비유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④ question the impact that music has on maintaining...: 음악이 미적 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 ⑤ distinguish the fundamental independence...: 음악가의 독립성을 과학의 원리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적 조사를 '모방(pastiche)'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5. 결론

현대의 음악가들이 예술적 가치보다 기술적 진보와 참신함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며 과학자처럼 변모해가는 과정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③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often express problems interrogatively. Instead of commanding you to find my keys, I might ask you where they are. But "Where are my keys?" is a problem hiding in question clothing. To see this, consider some possible answers. "Not on the surface of the sun" truthfully gives the location of my keys, as does, "Wherever your keys are." Nonetheless, these are bad answers, and they are bad precisely because they do not help me achieve the goal—leaving the house, opening a locked door—to which keylessness constituted an obstacle. Consider the reply "They are in your room." This is a good reply if you have a small, tidy room, but if your room is large and messy, you might need the location more clearly specified. Whether or not it is a good reply is a function of whether or not it solves the problem. Indeed, "Here, take mine" could be a good reply to "Where are my keys?" if what is needed is to leave the house quickly. A good reply doesn't need to offer an answer to the question, "Where are my keys?" as long as it resolves the problem of not being able to leave the house.

*interrogatively: 의문문의 형태로

- ① 의문문의 형태로 요청할 경우 의미 전달이 약해질 수 있다.
- ②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③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더 신뢰를 얻는다.
- ④ 정확한 의도 전달에는 간결한 형태의 질문이 효과적이다.
- ⑤ 질문이 내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좋은 답이다.

우리는 자주 문제를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한다. 여러분에게 내 열쇠를 찾으라고 명령하는 대신, 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것이다. 하지만 '내 열쇠 어디에 있어?'는 질문이라는 겉에 속에 숨어 있는 문제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한 대답을 고려해 보라. '태양의 표면에는 없어'는 내 열쇠의 위치를 사실대로 알려주며, '내 열쇠가 있는 곳 어디든지.'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안 좋은 대답이며, 정확히 왜냐하면 열쇠가 없음이 장애물이 되었던, 집을 떠나는 것, 잠긴 문을 여는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좋지 않다. '그것은 네 방에 있어.'라는 답변을 고려해 보라. 여러분이 작고 잘 정돈된 방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답변이지만, 여러분의 방이 크고 지저분하다면, 여러분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것이 좋은 답변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닌지와 함수 관계에 있다. 실제로, 만약 필요한 것이 집을 빨리 떠나는 것이라면, '여기, 내 거 가져가.'는 '내 열쇠 어디에 있어?'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 좋은 답변은 집을 떠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열쇠 어디에 있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우리는 흔히 문제를 의문문의 형태로 표현하지만, 질문은 사실 '질문의 옷을 입고 숨어 있는 문제'라는 일반적 정의(General)로 시작합니다. 이후 '열쇠 찾기'라는 구체적인 상황(Specific)을 통해, 진실된 답변이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쁜 답이 되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파악 / 결론 도출

지문의 후반부 "Whether or not it is a good reply is a function of whether or not it solves the problem(좋은 답변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닌지의 함수이다)"와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질문의 문자적 형태에 매몰되지 않고 내포된 문제의 해결 여부가 답변의 질을 결정한다는 ⑤번이 정답이 되는 패턴입니다.

3. 난이도

하 (사례가 매우 일상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열쇠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내 것을 가져가라'는 대답이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반전의 예시를 통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 대의파악 해설

Step 1. [첫 번째 제시된 내용 파악]

지문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 의문문을 사용한다는 점을 짚으며 시작합니다. "내 열쇠 어디 있어?"라는 질문은 사실 "문이 잠겨서 나갈 수 없다"는 장애물(obstacle)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따라서 답변의 가치는 정보의 정확성보다 목표 달성(집을 나서는 것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Step 2. [핵심 논리 전개 파악]

핵심은 '진실한 답변'과 '좋은 답변'의 차이입니다. "태양 표면에는 없다"거나 "열쇠가 있는 곳에 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열쇠가 없어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나쁜 답'입니다. 반면, "내 열쇠를 가져가"라는 말은 열쇠의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빨리 집을 나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므로 '좋은 답'이 됩니다. 결국 질문은 정보를 묻는 행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Step 3. [선택지 비교]

- ① 의문문의 형태로 요청할 경우 의미 전달이 약해질 수 있다: 지문은 의미 전달의 강도가 아니라 답변의 효용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② 타인의 요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감'이라는 감정적 태도는 이 글의 논점(문제 해결)과 무관합니다.
- ③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한 답변이 더 신뢰를 얻는다: 정보의 출처나 신뢰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④ 정확한 의도 전달에는 간결한 형태의 질문이 효과적이다: 질문의 '형태'가 아닌 답변의 '목적'이 핵심입니다.
- ⑤ 질문이 내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좋은 답이다: "A good reply... resolves the problem"이라는 지문의 마지막 결론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5. 결론:

질문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여부보다 그 질문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변이 가치 있다는 ⑤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2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ng employees agree that AI has more positive impact with the dynamics of the workforce, though there are major concerns on job loss and being left behind. While AI has the potential to automate certain jobs, it is also giving rise to new career opportunities and demands. The increasing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has led to a sudden increase in the need for professionals who can effectively manage and get the most out of AI systems. Moreover, soft skills such as innovative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the capability for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re gaining greater recognition. In the age of AI, continuous learning has become an essential quality for professionals in the workplace. The ever-evolving technological landscape necessitates employees to consistently update their skills, acquire new knowledge, and adapt to the dynamic 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 Only reskilling and adaptability can help resolve the workforce of the future. Implanting a culture of ongoing learning by fostering a workplace culture that encourages continuous learning and skill development should be a main priority for each organization.

- ① need for ongoing learning at the workplace in the age of AI
- ② rise of ethical concerns regarding AI-driven job automation
- ③ significance of soft skills in resolving workplace conflicts
- ④ risk of relying on AI as a tool for retraining employees
- ⑤ limitation of adopting AI systems in workforce planning

젊은 직원들은 AI가 노동 인력의 역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실직과 뒤처지는 것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 AI가 특정 직업을 자동화할 잠재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직업 기회와 수요를 생기게 하고 있다. AI 기술 적용의 증가는 AI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혁신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학문 간 협력을 위한 역량과 같은 소프트 스킬이 더 큰 인정을 받고 있다. AI의 시대에, 지속적인 학습은 직장에서 전문가에게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적 지형은 직원이 지속적으로 자기 기술을 최신의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 환경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적응할 것을 필요로 한다. 오직 재교육과 적응력만이 미래의 노동 인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계속 진행되는 학습의 문화를 심어 주는 것은 각 조직의 주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AI가 일자리 상실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와 수요를 창출한다는 일반적 현황(General)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후 AI 시스템 관리 능력, 소프트 스킬(창의적 사고, 협업 등), 그리고 가장 핵심인 '지속적인 학습(continuous learning)'의 필요성이라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Specific)을 강조하며 조직 차원의 문화 형성을 촉구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파악 / 핵심 재진술 (A)

지문 중반부 이후 "In the age of AI, continuous learning has become an essential quality(AI 시대에 지속적 학습은 필수적 자질이 되었다)"와 마지막 문장의 "fostering a workplace culture that encourages continuous learning(지속적 학습을 장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시대 직장에서의 지속적 학습의 필요성을 언급한 ①번이 정답이 되는 패턴입니다.

3. 난이도

하 (주제가 매우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continuous learning', 'ongoing learning', 'reskilling'과 같은 핵심 키워드가 지문 전체에 걸쳐 등장하므로 오답을 고를 확률이 낮은 평이한 문항입니다.)

4. 대의파악 해설

Step 1. [첫 번째 제시된 내용 파악]

지문은 AI가 노동 인력의 역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젊은 직원들의 동의와 함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AI가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을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Step 2. [핵심 논리 전개 파악]

핵심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인간의 적응'입니다. 단순 기술적 능력 외에도 혁신적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소프트 스킬'이 중요해졌으며, 무엇보다 기술의 진화 속도에 맞춰 자신의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지속적 학습(continuous learning)이 생존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개인의 노력(재교육과 적응력)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학습 장려 문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Step 3. [선택지 비교]

- ① need for ongoing learning at the workplace in the age of AI: 지문에서 거듭 강조한 'AI 시대', '지속적 학습(ongoing/continuous learning)', '직장(workplace)'이라는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② rise of ethical concerns regarding AI-driven job automation: 일자리 자동화는 언급되나 '윤리적 우려'는 이 글의 논점이 아닙니다.
- ③ significance of soft skills in resolving workplace conflicts: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은 언급되지만, '직장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용도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 ④ risk of relying on AI as a tool for retraining employees: AI를 재교육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지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⑤ limitation of adopting AI systems in workforce planning: AI 도입의 '한계'가 아니라, 도입에 따른 '인간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 결론

AI로 인해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 모두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므로 ①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Something too domesticated isn't actually more accessible or approachable, it evaporates altogether—we just take it for granted until art restores its visibility. And perhaps translation is an art especially well suited for this task: while a great work of literature accumulates imitations and clichés and a body of scholarship and analysis and study guides that may well bury it, translations of that work free it from its stodgy fame and make the stone stony again, precisely by putting it in another language. A bad text is one that, in Berman's terms, lacks "native strangeness"—and when you translate it, nothing happens. The translation of a true work of art is significant because it reinforces and enhances qualities already inherent in it: "translation is not a makeshift, but the mode of existence by which a work reaches us as *étrange*" (translated by Heyvaert as "foreign," but I'm not sure about that). As Wilson put it, translation makes the work "seem more strange, and newly strange."

* cliché: 상투적인 표현 ** stodgy: 따분한

- ① Translation's True Calling: Restoring Vitality of the Unfamiliar
- ② Is Refining the Original Tone Always Better for Accessibility?
- ③ How Literary Guides Deprive Readers of Art's True Rawness
- ④ The Role of Translation in Distributing Regional Literature
- ⑤ Overcoming Native Strangeness for Successful Translation

너무나 길든 것은 실제로 더 다가가기 쉽거나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모두 증발해 버리며, 우리는 예술이 그것의 가시성을 회복할 때까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다. 그리고 아마도 번역은 이러한 파업에 특히 잘 맞는 예술인데, 위대한 문학 작품은 모방작과 상투적인 표현과 많은 양의 학술 연구와 분석과 학습 가이드를 축적하고 이는 그것을 묻어 버릴 수도 있는 반면, 그 작품의 번역본은 정확히는 그것을 다른 언어로 옮김으로써, 그 작품을 자신의 따분한 명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돌을 다시 돌담게 만든다. 안 좋은 텍스트란 Berman의 용어로 '본래의 낯설음'이 결여된 것이며, 여러분이 그것을 번역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 작품의 번역은 그것이 작품 안에 이미 내재된 자질을 강화하고 높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 "번역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한 작품이 우리에게 '낯선 것'(Heyvaert에 의해 '이질적인'으로 번역되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으로 다가오는 존재 양식이다." Wilson이 말했듯, 번역은 작품을 '더 낯설게, 그리고 새롭게 낯설게 보이도록' 한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너무 익숙해진 것(domesticated)은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며, 예술만이 그 가시성을 회복시킨다는 일반적 미학 원리로 시작합니다. 이후 '번역'을 그 과업에 가장 적합한 예술로 제시하며, 상투적인 표현과 학술적 해석에 묻혀버린 고전을 다른 언어로 옮김으로써 다시금 '낯설게(étrange)'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파악 / 핵심 키워드 조합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번역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돌을 다시 돌담게(make the stone stony again)", "더욱 낯설고 새롭게 낯설게(more strange, and newly strange)" 만드는 것이 번역의 진정한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번역의 소명과 '낯설'의 회복을 언급한 ①번이 정답이 됩니다.

3. 낱어도

상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 빅토르 슈클로프스키의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개념과 번역 이론가 앙투안 베르망의 '본래적 낯설'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make the stone stony again" 같은 비유적 표현의 함의를 파악해야 하므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입니다.)

4. 대의파악 해설

Step 1. [첫 번째 제시된 내용 파악]

지문은 '길들여진 것(domesticated)'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져 결국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역설을 제시합니다. 예술의 목적은 이렇게 무뎠던 우리의 감각을 깨워 사물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인데, 필자는 번역이야말로 문학 작품이 처한 '따분한 명성(stodgy fame)'이라는 감옥에서 작품을 구해낼 최적의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Step 2. [핵심 논리 전개 파악]

핵심은 번역이 가진 '외국어화'의 힘입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은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모방과 클리셰, 분석 비평들에 갇혀 그 본래의 질감이 파묻히기 마련입니다. 이때 번역은 작품을 다른 언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음으로써, 독자가 그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을 '생경함(strangeness)'을 복원합니다. 필자는 베르망의 말을 빌려, 진정한 예술 작품은 그 안에 '본래적 낯설'을 품고 있으며 번역은 이를 강화하고 고양하는 존재 방식이라고 강조합니다.

Step 3. [선택지 비교]

- ① Translation's True Calling: Restoring Vitality of the Unfamiliar: '번역의 진정한 소명: 생경함(낯설)의 생명력 회복'은 지문의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 ② Is Refining the Original Tone Always Better for Accessibility?: 지문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위해 원문을 다듬는 것이 오히려 작품을 증발시킨다고 비판합니다.
- ③ How Literary Guides Deprive Readers of Art's True Rawness: 문학 가이드가 작품을 묻어버린다는 언급은 번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일 뿐입니다.
- ④ The Role of Translation in Distributing Regional Literature: 지역 문학의 유통이나 확산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 ⑤ Overcoming Native Strangeness for Successful Translation: 필자는 낯설을 '극복(overcoming)'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번역을 통해 '드러내야 할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5. 결론:

번역은 고전 작품을 둘러싼 상투성을 걷어내고, 다른 언어로의 전이를 통해 작품 본연의 '낯설고 생생한 기운'을 되살려주는 예술적 행위이므로 ①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Darwin understood that since inheritance is conservative, it is in the nature of the organism to impose itself on the surroundings, ① producing many highly similar but variable offspring 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conditions. He further recognized that these fundamental aspects of the nature of the organism ② imply reproductive overrun, with organisms routinely producing more offspring than there are resources to support them. The need to survive implies that the capacity for using necessary resources must complement the opportunity to use ③ them. But needs and opportunity do not perfectly match. Inheritance produces the capacities for exploiting the surroundings, but in a way that is indifferent to the surroundings. Offspring cannot anticipate the nature of the conditions ④ which they find themselves, much less alter themselves in ways that are suitable to any changes in those conditions. While it is true that organisms can express some amount of flexibility in their form and function in response to their immediate surroundings, these adjustments are ⑤ minor compared to the constraints of inheritance. As a result, not every living thing can live everywhere.

* offspring: 자손 ** exploit: 이용하다

다윈은 유전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기체의 본성은 자신을 주변 환경에 강요하는 것에 있고, 상황의 성질과 무관하게 매우 유사하면서도 변이성이 있는 많은 자손을 생산한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는 또한 유기체의 본성에 관한 이러한 근본적인 측면이 과잉 생산을 수반하며, 유기체들이 자손을 부양할 자원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통상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생존의 필요성은 필수적인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과 기회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유전은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을 만들어 내지만, 주변 환경을 개의치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자손은 자신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의 성질을 예측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 속 어떤 변화에도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바꾸는 것도 할 수 없다. 유기체가 자신과 인접한 주변 환경에 반응하여 자신의 형태와 기능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적응은 유전의 제약과 비교하면 사소하다. 그 결과, 모든 생명체가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정답: ㉠ (which → in which / where)

2. 어법 분석 5단계 Step

㉠ producing (분사구문: 현재분사)

분석: "Darwin understood that... it is in the nature of the organism to impose itself on the surroundings, producing many..."

해설: 앞선 절(주절)의 내용에 이어지는 부수적인 상황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입니다. 주체인 '유기체의 본성'이 능동적으로 자손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producing은 적절합니다.

㉡ imply (동사의 수 일치)

분석: "He further recognized that these fundamental aspects of the nature of the organism imply reproductive overrun..."

해설: that절 내부의 주어는 these fundamental aspects로 복수입니다. 따라서 복수 동사인 imply를 쓴 것은 수 일치 원칙에 부합합니다.

㉢ them (대명사의 수 일치)

분석: "...the capacity for using necessary resources must complement the opportunity to use them."

해설: 대명사 them이 지칭하는 대상은 앞에 나온 necessary resources입니다. 복수 명사를 받고 있으므로 복수 대명사 them은 적절합니다.

㉣ which (관계대명사)

분석: "Offspring cannot anticipate the nature of the conditions which they find themselves..."

해설: 관계대명사 which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뒤의 they find themselves는 "그들 자신이 (~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어떤 환경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완성하려면 전치사 in이 필요합니다.

㉤ minor (형용사의 보어 역할)

분석: "...these adjustments are minor compared to the constraints of inheritance."

해설: 연결 동사(be동사) are 뒤에서 주어인 adjustments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사용하므로 minor는 적절합니다.

30.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Every time you conceptualize, categorize, and put a name on something that is not a proper name, you abstract away from its particularities. Picture daisies and clover flowers in a lawn. Those four ordinary nouns leave out their ① differences. "Flower" co-categorizes the white and yellow types with the beige ones, and all the many other sorts to be found elsewhere. "Lawn" ② acknowledges the varieties of grass and all the nongrassy plants that are there. Zoom in, and you will find individuality and uniqueness everywhere. No two daisies, no two clovers, are exactly ③ alike, and yet they present to a quick glance a carpet patterned uniformly enough. For most practical purposes, the differences can be ④ ignored—making a daisy chain, sunbathing, and the like. Not so, however, for the groundskeeper of a sports stadium, where the constituent grasses and their stages of growth really do matter. And to an infinite mind, with infinite memory, each blade of grass, with its own distinct life history, need not be ⑤ co-categorized with all its fellows. Each could have its own name, as you yourself do.

* infinite: 무한한 ** blade: (식물의) 잎

고유 명사가 아닌 무언가를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명명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의 상세한 사항 간의 차이를 무시한다. 잔디에 있는 데이지와 클로버 꽃을 떠올려 보라. 그 네 개의 보통 명사는 그것들의 차이를 생략한다. '꽃'이라는 말은 흰색과 노란색 종류를 베이지색 종류,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모든 수많은 다른 종류와 함께 하나의 범주로 묶어 버린다. '잔디'라는 말은 그곳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풀과 모든 풀이 아닌 식물을 무시한다(neglects). 확대해 보면, 여러분은 개별성과 고유성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데이지 두 송이도 어떤 클로버 두 개도 정확히 같지 않지만, 재빨리 힐끗 한 번 보기에 그것들은 충분히 균일한 무늬의 카펫으로 보인다. 데이지 꽃 사슬 만들거나 일광욕하기 등과 같은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차이들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인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그곳에서는 잔디를 구성하는 풀들과 그것들의 성장 단계가 실제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무한한 기억력을 지닌 무한한 정신에게 각각의 풀잎은, 각기 고유한 생애 이력을 지닌 그것의 모든 비슷한 것과 함께 하나의 범주로 묶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하듯, 각각은 자기만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우리가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할 때, 그 사물이 가진 고유한 개별성(particularities)을 추상화하여 제거한다는 일반적 원리(General)로 시작합니다. 이후 '잔디밭(lawn)', '꽃(flower)', '데이지(daisy)'라는 구체적인 명칭(Specific)들이 실제로는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이점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설명하며, 관찰자의 목적에 따라 이 추상화의 정도가 달라짐을 논증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반대 추론 / 문맥적 모순 파악

지문의 핵심 논리는 '이름을 붙이는 행위 = 차이점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②번 앞 문장에서 "꽃"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색깔들을 한데 묶어버린다(co-categorizes)고 설명했으므로, 이어지는 "Lawn(잔디밭)"이라는 단어 역시 그 안에 섞여 있는 다양한 풀의 종류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야(overlooks/ignores) 글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인정하다/알아차리다'라는 뜻의 acknowledges는 문맥상 정반대인 패턴입니다.

3. 낱어도

중 (추상화(abstraction)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름'이 개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역설적인 통찰을 따라가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어휘 판단 예설

Step 1. [지문의 핵심 주제 및 논리 구조 파악]

지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명사들이 실제 세계의 복잡한 개별성을 단순화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데이지'나 '클로버'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각각의 꽃이 가진 고유한 모양이나 상태의 차이를 지워버리고 '데이지'라는 추상적 틀 안에 가둡니다. 즉, 언어적 범주화는 차이점을 배제하는 작업입니다.

Step 2.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 분석]

- ① differences: "데이지", "클로버" 같은 명사가 개별 꽃들 사이의 차이점을 '남겨둔 채 생략(leave out)'한다는 설명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acknowledges (오답): "잔디밭(Lawn)"은 그 안에 있는 잡초, 이끼, 서로 다른 종류의 풀들을 모두 하나로 뭉뚱그려 부르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잔디밭"이라는 단어는 그 다양성을 '인정(acknowledges)'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ignores)'하거나 '간과(overlooks)'하는 것입니다.
- ③ alike: 확대해서 보면(zoom in) 모든 생명체는 고유하므로, 똑같이 닮은(alike)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맥락에서 적절합니다.
- ④ ignored: 일광욕을 하거나 꽃팔찌를 만드는 등의 실용적 목적(practical purposes)을 위해서는 굳이 풀 한 포기 차이를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무시될(ignored) 수 있습니다.
- ⑤ co-categorized: 무한한 기억력을 가진 존재라면 굳이 사물을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개체들과 함께 범주화(co-categorized)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적절합니다.

Step 3. [선택지 비교 및 정답 확정]

전체 지문은 '명명(naming)'이 개별성을 희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②번의 acknowledges를 쓰면 "잔디밭"이라는 단어가 세부 사항을 잘 살려준다는 의미가 되어, 글 전체의 주제인 '추상화는 세부 사항을 지운다'는 논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결론: 범주화는 차이점을 지우는 과정이므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의 ②번은 문맥상 overlooks나 ignores로 고쳐야 합니다.

31. "Art without commerce is a hobby." These words, spoken with much authority to senior fine arts majors, are the kind that those who create art are unable to ignore. We worry about this idea that if we are not engaged in commerce, then we are not professional; and if we are not professional, can we even call ourselves artists? Art of any form, by its very nature, cannot or should not be quantified, and yet writers measure pages and words; visual artists measure canvases completed all in an effort to appear "productive," to perhaps justify this urge to create. The notion of creating for art's sake is then seen as hopelessly romantic and nearly indefensible. Of course one can engage in art, but it better be for money, for that is the only marker of success. But was that professor's declaration merely an old talker with a title mindlessly repeating the cultural norms and expectations that had, in fact, labeled him as "successful"? In Western culture, it is almost impossible to separate professional from commercial, and so the artist is legitimized by their ability to earn money. Professional art, then, is inherently

- ① universal ② individualist ③ romantic
- ④ collective ⑤ capitalist

"상업이 없는 예술은 취미이다." 졸업반 미술 전공생들에게 큰 권위를 가지고 전달된 이 말은 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이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의 말이다. 우리는 만약 상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 생각에 대해 걱정하며, 그러면 만약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신을 예술가라고 심지어 부를 수 있겠는가? 어떤 형태의 예술이든 바로 그 본질상 수량화될 수 없거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부수와 단어 수를 세고, 시각 예술가는 완성된 캔버스 개수를 세는데, 이는 모두 '생산적'으로 보이기 위한, 어쩌면 창작하고자 하는 이 충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예술을 위한 창작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어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낭만적이고 거의 옹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 사람은 예술에 종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돈을 위한 것인 편이 나는데, 돈이 성공의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교수의 선언은, 직함을 가진 나이 든 수다쟁이가 사실상 그에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붙여 준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아무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가? 서양 문화권에서는 상업성에서 전문성을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예술가는 돈을 버는 능력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렇다면, 전문 예술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이다.

1. 글의 구조

CF (Comparison & Contrast / 대조)

예술 본연의 가치인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과 현대 서구 사회가 강요하는 '상업적 성공(commerce)'을 대조합니다. 예술가는 생산성을 증명하고 돈을 벌어야만 '프로'로 인정받는다라는 현실을 포집으며, 결국 전문 예술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파악 / 핵심 재진술 (A)

지문 전반에서 "Art without commerce is a hobby(상업성 없는 예술은 취미일 뿐이다)", "legitimized by their ability to earn money (돈을 버는 능력에 의해 정당화된다)", "marker of success(성공의 척도)" 등의 표현이 반복됩니다. 상업적 가치와 이윤이 곧 정체성이 되는 체제를 나타내는 단어인 ⑤번 capitalist(자본주의적인)가 정답이 되는 패턴입니다.

3. 난이도

중하 (비교적 명확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상업성=성공=프로'라는 연결 고리를 파악했다면, 선택지 중에서 경제적 체제와 관련된 단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4. 빈칸 해설

Step 1. [빈칸의 역할 파악]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서구 문화에서 '전문적(professional)'이라는 개념이 '상업적(commercial)'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앞 문장의 논리를 바탕으로, 오늘날 전문 예술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게 되었는지를 정의하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Step 2. [지문의 단서 분석]

지문은 예술이 자본의 논리에 편입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서로 제시합니다.

- 단서 1: "상업성이 없으면 취미다"라는 말이 예술가들에게 권위 있게 다가온다. 즉, 돈이 안 되면 예술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공포가 있다.
- 단서 2: 예술가들은 스스로의 창작을 정당화하기 위해 페이지 수나 캔버스 수를 측정하며 '생산성(productive)'을 증명하려 애쓴다.
- 단서 3: 서구 문화에서 예술가의 정당성은 '돈을 버는 능력(ability to earn money)'에 의해 부여된다.

Step 3. [선택지 비교]

- ① universal: '보편적인'. 예술이 모든 이에게 통용된다는 내용은 지문의 핵심(상업성)과 거리가 멉니다.
- ② individualist: '개인주의적인'. 예술가의 개성을 강조하는 맥락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평가 잣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 ③ romantic: '낭만적인'. 지문에서 "art for art's sake"를 설명할 때 썼지만, 이는 필자가 비판하는 '현실(현대 전문 예술)'과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 ④ collective: '집단적인'. 예술의 공동체적 성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⑤ capitalist: '자본주의적인'. 돈과 상업성이 성공과 프로의 유일한 지표가 되는 서구 사회의 예술 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5. 결론:

서구 사회에서 예술가의 전문성은 곧 상업적 성공(수익 창출 능력)으로 평가받으므로, 전문 예술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capitalist)인 성격을 띠는 ⑤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32. We cannot make sense of the facts of the past unless they are embedded in stories, and stories, of necessity, are not neutral collections of facts. Stories are necessarily selective, subjective and attractive. The shortest of stories is the result of choices, conscious and unconscious. Stories influence subtly, invest power, make hidden moral judgement and always distort by omission, whether intentionally or not. This is why all educated citizens need an ability to appropriate history for one's own ends. For we need to understand why history takes the form that it does in scholarly accounts.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 is not the same as informal hearing and telling of stories; it requires familiarity with abstract generalizations, familiarity with prior scholarly discourse and an ability to make use of evidence, styles of argument and analytic structures in order to substantiate claims. Such disciplinary knowledge is not the same as 'everyday' knowledge and it is not likely to be picked up informally.

* omission: 생략

- ① an ability to appropriate history for one's own ends
- ② not just facts about the past but history as a discipline
- ③ informal methods to record overlooked historical moments
- ④ disciplinary measures to maintain cultural particularity
- ⑤ a firm moral sense when reflecting on the past

과거의 사실들이 이야기 속에 파묻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실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사실들의 중립적인 모음집이 아니다.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선택적이고, 주관적이며, 매혹적이다. 가장 짧은 이야기조차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택의 결과물이다. 이야기는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권력을 부여하며, 숨겨진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항상 생략을 통해 왜곡하는데,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그러하다. 이것이 모든 학식 있는 시민에게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역사도 필요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문적 기술에서 역사가 왜 그런 형태를 취하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율에 따른 역사적 논증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그것은 추상적 일반화에 대한 익숙함, 이전의 학문적 담론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와 논증 방식, 분석적 구조를 이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한 학문적 지식은 '일상적' 지식과 같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습득될 것 같지 않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과거의 사실은 이야기 속에 담길 때 비로소 의미를 갖지만, 그 이야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일반적 전제(General)로 시작합니다. 이후 이야기가 가진 주관성, 선택성, 왜곡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지식과는 다른 학문적 체계로서의 역사 지식(Specific)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향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 파악 / 개념 대조

지문은 '비공식적인 이야기하기(informal telling of stories)'와 '학문적인 역사적 논쟁(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을 명확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빈칸 뒤에서 "왜 역사가 학술적 설명(scholarly accounts)의 형태를 띠는지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므로,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역사가 구성되는 방식, 즉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②번이 정답이 되는 패턴입니다.

3. 낱어도

중 (역사 서술의 주관성을 다루는 전형적인 인문학 지문입니다. 'Subjective stories'와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의 차이를 이해하고, 빈칸 뒤의 'disciplinary knowledge'라는 직접적인 단서를 포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4. 빈칸 해설

Step 1. [빈칸의 역할 파악]

빈칸이 포함된 문장은 앞서 언급된 '이야기(Story)의 주관성과 왜곡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이자, 교양 있는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문장들에서 "학술적 설명", "학문적 논쟁", "분석적 구조"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체계적인 학문적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Step 2. [지문의 단서 분석]

지문은 우리가 역사를 접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필요한 능력을 다음과 같은 단서로 제시합니다.

단서 1: 모든 이야기는 선택적이고 주관적이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생략을 통해 왜곡(distort by omission)을 발생시킨다.

단서 2: 학문적 역사 논쟁(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은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증거의 사용, 논증 방식, 분석 구조를 필요로 한다.

단서 3: 이러한 '학문적 지식(disciplinary knowledge)'은 일상적인 지식과는 다르며, 비공식적으로 습득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시민들은 역사적 사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역사가 어떻게 학문적으로 재구성되는지 그 학문적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Step 3. [선택지 비교]

① an ability to appropriate history for one's own ends: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역사를 전유(마음대로 사용)하는 능력'은 지문이 경고하는 주관적 왜곡을 오히려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② not just facts about the past but history as a discipline: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역사'. 지문의 'scholarly accounts'와 'disciplinary knowledge'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③ informal methods to record overlooked historical moments: 지문은 '비공식적(informal)'인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④ disciplinary measures to maintain cultural particularity: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율/조치'. 지문의 맥락인 역사 서술의 방법론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⑤ a firm moral sense when reflecting on the past: 지문은 이야기가 숨겨진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을 내린다고 말하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런 판단의 기저에 있는 '학술적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5. 결론:

이야기에 담긴 주관성과 왜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역사를 연구하고 구성하는 체계인 학문으로서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므로 ②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33. All architectural structures are forms of spatial choreography that guides action; space facilitates or prohibits, encourages or prevents, invites or inhibits. This choreography predetermines patterns of movement and behavior, but it also guides experiential characteristics, perceptions, imageries, emotions and feelings. A sensitive and empathic designer intuitively human behavior and desire, and this intuitive architectural scripting resonates with the actual user/occupant's natural and instinctual needs and intentions. While designing a house, the designer lives, uses and feels the non-existent house in his imagination on behalf of the future dweller. A correctly placed window is located exactly where the occupant wishes to look out into the garden, or where daylight is needed. The stairway is located where the dweller wishes to enter the floor above or below. Successful architecture does not need manuals or signage for its use, as it reveals its very structure and use in a wordless manner. A profound building is _____ . [3점]

* choreography: 연출 ** intuit: 직관으로 알다 *** resonate: 공명하다

- ① an instrument to pass down cultural mindsets of its time
- ② a spatial logic made independent from nonprofessional opinions
- ③ an extension of human bodily and mental actions and capabilities
- ④ an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designer's aesthetic preference
- ⑤ a structure whose outward appearance masks its function

모든 건축 구조물은 행동을 유도하는 공간적 연출의 형태인데, 공간은 촉진하거나 금지하고, 권장하거나 막고, 초대하거나 억제한다. 이러한 연출은 움직임과 행동 양식을 미리 결정하지만, 그것은 또한 경험적 특성, 지각, 심상, 감정과 느낌을 유도한다. 세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계자는 인간의 행동과 욕망을 직관으로 알며, 이러한 직관적인 건축적 대본 쓰기는 실제 사용자 또는 입주자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 및 의도와 공명한다. 주택을 설계하는 동안, 설계자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미래 거주자를 대신하여 존재하지 않는 집을 경험하고, 사용하고, 느낀다. 올바르게 배치된 창문은 입주자가 정원을 내다보고 싶어 하는, 또는 햇빛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 설치된다. 계단은 거주자가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에 설치된다. 성공적인 건축에는 그것의 사용을 위한 설명서나 표지판이 필요하지 않은데, 성공적인 건축은 무언의 방식으로 바로 그 구조와 용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심오한 건물은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행동과 능력의 연장이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건축물은 행동을 안내하는 '공간적 연출(choreography)'이라는 일반적 정의로 시작합니다. 이후 유능한 설계자가 미래 거주자의 욕구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창문이나 계단의 위치를 결정하는지 구체적인 설계 과정을 묘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설명서가 필요 없는 건축이 훌륭한 건축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건축의 본질을 요약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파악 / 핵심 개념 재진술 (A)

지문 전체가 건축을 "인간 행동의 가이드", "본능적 필요와의 공명", "거주자를 대신하여 느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축을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활동의 확장(extension)으로 정의한 ③번이 정답이 되는 패턴입니다.

3. 낱어도

중 (건축을 '안무(choreography)'나 '스크립팅(scripting)'에 비유한 표현들이 신선하지만,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사용자의 의도와 공명한다"는 핵심 문장을 잡았다면 정답을 고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4. 빈칸 해설

Step 1. [빈칸의 역할 파악]

빈칸은 지문의 마지막 문장으로서, 앞서 상황하게 설명한 '인간의 욕구와 행동을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건축'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오한(깊이 있는) 건물이란 곧 ~이다"라는 정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Step 2. [지문의 단서 분석]

지문은 훌륭한 건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단서로 제시합니다.
 단서 1: 건축은 행동을 유도하고 감정과 지각을 안내하는 공간적 연출이다.
 단서 2: 설계자는 미래 거주자를 대신하여 상상 속에서 집을 사용해 보며, 사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곳에 창문을 내고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계단을 놓는다.
 단서 3: 성공적인 건축은 설명서나 표지판 없이도 그 구조와 용도를 말 없는 방식(wordless manner)으로 드러낸다.
 결론: 건축물은 인간의 의도와 행동이 공간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공간으로 연장시킨 결과물이다.

Step 3. [선택지 비교]

- ① an instrument to pass down cultural mindsets...: 문화적 사고 방식을 전수하는 도구라는 거시적 담론은 지문의 미시적 행동 분석과 거리가 멉니다.
- ② a spatial logic made independent from nonprofessional opinions: 비전문가의 의견(거주자)으로부터 독립된 논리라는 것은 "거주자의 욕구와 공명한다"는 본문의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 ③ an extension of human bodily and mental actions and capabilities: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행동과 능력의 확장. "행동을 안내하고(guides action)", "욕구와 공명한다(resonates with desire)"는 본문의 핵심을 가장 잘 꿰뚫는 표현입니다.
- ④ an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designer's aesthetic preference: 설계자의 미적 취향이 아니라 '거주자의 필요'가 우선임을 지문은 강조합니다.
- ⑤ a structure whose outward appearance masks its function: 외관이 기능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건축은 기능을 "드러낸다(reveals)"고 했습니다.

5. 결론:

건축은 인간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공간적으로 실현한 것이므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③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34. Think of the totality of your interactions where behavioral and interactional data is recorded and collected. All of those traces represent a kind of resource. It is accumulated over the long history of your recorded actions and choices, built up from traces left on everything from social media to credit reporting agencies, shopping websites and loyalty programs, courthouses, social welfare agencies, pharmacies, and the content of emails and chats. It incorporates whatever value is in your social network, along with synthetic measures of your trustworthiness or accountability in the world. It is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and, of course, it is not all gathered into a single place or condensed down to a single quantity. But in principle it might be. It might take the form of some vector of information that summarizes your situation and value across many features — something that compactly represents your position in the multidimensional space of classification situations. It would, in short,

- * synthetic: 종합적인 ** condense: 압축하다
*** vector: 벡터, 방향량
- ① conceal your digital traces
 - ② correct one's misconception
 - ③ 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
 - ④ define what has exchange values
 - ⑤ represent widespread social trends

행동과 상호 작용 데이터가 기록되고 수집되는 여러분의 상호 작용 전체를 생각해 보라. 그 모든 흔적은 일종의 자원을 나타낸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록된 행동과 선택의 오랜 역사에 걸쳐 축적되며, 소셜 미디어에서 신용 조사 기관, 쇼핑 웹사이트와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법원, 사회 복지 기관, 약국, 이메일과 채팅의 내용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에 남겨진 흔적으로부터 구축된다. 그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신뢰성이나 책임감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지와 더불어, 여러분의 사회 관계망에 있는 어떠한 가치든 포함한다. 그것은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물론 모두 단 한 곳에 모이거나 단 하나의 양으로 압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많은 특징에 걸쳐 여러분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하는 어떤 정보 벡터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데, 즉 분류 상황의 다차원적 공간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무언가이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특징지을 것이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상호작용 데이터가 일종의 '자원'으로 기록되고 수집된다는 일반적 사실로 시작합니다. 이후 소셜 미디어, 신용 보고서, 쇼핑, 이메일 등 구체적인 데이터의 원천을 나열하며, 이것들이 결국 개인의 신뢰도와 가치를 요약하는 '벡터(vector)' 정보로 압축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파악 / 핵심 재진술 (A)

지문 후반부의 "summarizes your situation and value(당신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한다)", "represents your position in the multidimensional space(다차원 공간에서 당신의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결국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규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사회적 위치를 특징짓다(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라는 ③번이 정답이 되

는 패턴입니다.

3. 낱어도

중 ('Vector'나 'Multidimensional space' 같은 수학적·데이터 과학적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총합 = 나의 정보 요약'이라는 흐름을 잡으면 정답 접근이 수월합니다.)

4. 빈칸 해설

Step 1. [빈칸의 역할 파악]

빈칸은 지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앞서 설명한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집합이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In short)하는 부분입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들어가야 합니다.

Step 2. [지문의 단서 분석]

지문은 디지털 데이터가 개인을 규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단서로 제시합니다.

단서 1: 소셜 미디어부터 신용도, 약국 기록, 이메일까지 모든 기록이 축적되어 일종의 자원을 형성한다.

단서 2: 이 데이터는 다차원적이며, 한 사람의 신뢰성이나 책임감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포함한다.

단서 3: 이 모든 정보는 개인의 상황과 가치를 요약하는 '정보의 벡터(vector of information)'가 되어, 분류 상황(classification situations)이라는 다차원 공간 속에서 개인의 위치(position)를 나타낸다.

결론: 수집된 데이터의 총합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즉 나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하는 지표가 된다.

Step 3. [선택지 비교]

① conceal your digital traces: '디지털 흔적을 숨긴다'. 지문은 흔적이 기록되고 수집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므로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② correct one's misconception: '오해를 바로잡는다'.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나 결과로서 오해 정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③ characterize your social location: '당신의 사회적 위치를 특징짓다'. 본문의 "represents your position(위치를 나타낸다)"을 가장 정확하게 재진술한 표현입니다.

④ define what has exchange values: '무엇이 교환 가치를 갖는지 정의하다'. 데이터가 자원(resource)이라고는 했으나, 개별 물건의 교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요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⑤ represent widespread social trends: '광범위한 사회적 트렌드를 나타낸다'. 지문은 집단의 트렌드가 아닌 '개인(you)'의 데이터와 위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결론:

파편화된 수많은 개인 데이터가 모여 다차원적인 정보 벡터를 형성하면, 그것은 결국 사회적 분류 체계 내에서 한 개인의 사회적 위치(social location)를 규명하게 되므로 ③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3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Morality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rational human beings for more than one reason. First of all, it is human beings who are gifted with the faculty of reasoning; secondly, human beings have free will to choose what is the best for them among many alternatives. ① To think and reason about things is the primary function of the human mind as has been noted by all philosophers since Descartes. ② It is because of this capacity to think and weigh the pros and cons of actions that human beings can plan for their future and make sufficient effort to achieve their chosen goals in life. ③ In other words, obsessing over advantages only and fixating on benefits lead human beings to make wrong choices. ④ Besides, human beings make free choices in all given situations, except where they are constrained to act. ⑤ Thus freedom is a basic feature of human life which distinguishes humans from other animals.

도덕성은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이성적인 인간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첫째, 추론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이며, 둘째, 인간 존재는 많은 대안 중에서 자신에게 최선인 것을 선택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은 데카르트 이래로 모든 철학자가 주목했듯이 인간 정신의 주된 기능이다. 인간 존재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삶에서 선택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생각하고 행동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이러한 능력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 존재는 행동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므로 자유는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 짓는 인간 삶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인간의 도덕성은 이성 및 자유 의지와 결합되어 있다는 일반적 전제(General)를 제시합니다. 이후 이성적 사고의 기능(①), 그로 인한 미래 계획 능력(②), 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④), 그리고 동물을 구별 짓는 자유의 특성(⑤)이라는 구체적 속성(Specific)들을 나열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중심내용파악 / 소재 이탈 및 어조 변화 (C)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인간이 왜 도덕적 주체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의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③번 문장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을 이끈다"라는 특정한 도덕적 훈계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능력의 근거'를 설명하는 전체 맥락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내용이므로 무관한 문장 패턴입니다.

3. 난이도

하 (핵심 키워드인 '이성(reasoning)'과 '자유 의지(free will)'가 각 문장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확인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③번 문장은 'In other words(즉)'라는 연결어를 사용했지만, 앞 문장(이성적 계획 능력)의 결론으로 보기에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4. 무관한 문장 해설

Step 1. [지문의 주제 및 핵심 키워드 파악]

지문의 도입부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성의 능력 (Faculty of reasoning): 사유하고 추론하는 힘.

자유 의지 (Free will): 여러 대안 중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Step 2.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성 검토]

①번 문장: 데카르트 이후 철학자들이 강조해온 '사유와 추론'이 인간 정신의 기본 기능임을 언급하며 '이성'의 축을 보강합니다.

②번 문장: 이러한 '생각하고 장단점을 따지는 능력' 덕분에 인간이 미래를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④번 문장: 강요된 상황이 아니라면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유 의지'의 축으로 돌아옵니다.

⑤번 문장: 따라서 이러한 '자유'가 인간을 동물과 구분 짓는 핵심 특징이라고 결론짓습니다.

Step 3.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 확정]

③번 문장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소재의 부적절성: 전체 글은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설명하는데, ③번은 '선택을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가'라는 방법론적/교훈적 측면을 다룹니다.

연결어의 오류: 'In other words(즉)'는 앞 내용을 재진술할 때 씁니다. ②번에서 '이성 덕분에 미래를 계획하고 성취한다'고 했는데, 이를 '즉, 이익에 집착하면 망한다'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5. 결론:

인간의 도덕적 토대인 이성과 자유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서, 이기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③번은 전체 흐름을 방해하므로 정답입니다.

36.

Daniel Dennett argues that one benefit of having moral considerations in our conceptual repertoire is that they can serve as *conversation-stoppers*: their value is to bring deliberations to a close. We are rational creatures, always able to ask for justification, and this is a trait that has served us well in many contexts.

- (A) This is potentially as much a problem for our own private deliberations as for our public interpersonal ones. Dennett suggests that it is useful to have "consideration-generator-squelchers": items that, once introduced, stop any further deliberation in its tracks.
- (B) "That would be morally wrong!" would appear to work in this manner. Once the claim is accepted then there is no need or room for seeking further justification: the action mustn't be done, even if it is tempting, and that's all there is to it.
- (C) The problem is that upon receiving a perfectly good answer we can always sensibly respond "Okay, but what justifies that?"—and we can potentially do so endlessly, never coming to a decision, forever hesitant and doubting, undone by our own rational capacity. [3점]

*squelcher: (남을) 꺾소리 못하게 하는 말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Daniel Dennett은 우리의 개념적 레퍼토리에 도덕적 고려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의 한 가지 이점은 그것들이 '대화 중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즉 그것들의 가치는 심사숙고를 끝내는 데 있다. 우리는 이성적인 피조물로, 항상 타당한 이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많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어 온 특성이다.

(C)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타당한 답변을 받자마자 언제든지 "좋아, 그런데 무엇이 '그것'의 타당함을 보여 주는가?"라고 분별 있게 응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는 어쩌면 무한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결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망설이고 의심하며, 우리 자신의 이성적 역량에 의해 완전히 좌절하고 만다.

(A) 이것은 우리의 공적인 대인 간 심사숙고에서만이나 우리 자신의 사적인 심사숙고에서도 잠재적으로 문제이다. Dennett은 '고려 사항 생성기를 꺾소리 못하게 하는 말'을 갖는 것이 쓸모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일단 도입되면 어떤 그 이상의 심사숙고도 즉시 멈추게 하는 항목이다.

(B)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일 거야!"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일단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더 이상의 타당한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역시 없고, 그 행동은 비록 솔깃해도 해서는 안 되며, 그저 그뿐이다.

1. 글의 구조

PS (Problem - Solution)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 무엇이든 정당화(이유)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끝없는 질문으로 이어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Problem)를 먼저 제시합니다. 이후 도덕적 고려사항이 이러한 속고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해결책(Solution)이자 '대화 중단 장치'로서 기능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지시어 및 연결어 추론

주어진 문장의 "rational creatures(이성적 존재)"가 가진 특징이 (C)의 "The problem is...(문제는...)"로 이어지며 끝없는 질문의 굴레를 설명합니다. 이 문제가 개인과 공적 영역 모두의 문제임을 지적하는 (A)의 "This is potentially as much a problem..."이 뒤를 잇고, 마지막으로 (B)에서 구체적인 도덕적 예시("그건 도덕적으로 나빠!")를 들어 마무리하는 패턴입니다.

3. 난이도

상 (대니얼 데넷의 '철학적 도구' 개념이 등장하여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A)와 (C) 중 무엇이 먼저올지 판단할 때, '문제 제기(C)'가 '문제의 확장(A)'보다 앞서야 한다는 논리적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글의 순서 해설

Step 1. [주어진 문장 -> (C): 이성의 역설적 문제점]

주어진 문장은 인간이 항상 정당화를 요구하는 이성적 존재임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C)는 "The problem is...(문제는...)"라며 반전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답변을 들어도 "그건 무엇이 정당화해주지?"라고 끝없이(endlessly)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주저하게 됩니다.

Step 2. [(C) -> (A): 문제의 성격 정의와 'Squelcher' 도입]

(C)에서 묘사한 '이성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를 (A)의 첫 문장인 "This is potentially as much a problem..."이 '이 문제'로 받습니다. 이는 개인적 고민이나 타인과의 대화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데넷은 여기서 해결책으로 '속고 생성 억제기 (consideration-generator-squelchers)'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일단 도입되면 더 이상의 속고를 즉각 멈추게 하는 도구입니다.

Step 3. [(A) -> (B): 도덕적 판단이라는 구체적 예시]

(A)에서 소개한 '억제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B)가 설명합니다. 바로 "그건 도덕적으로 틀렸어!"라는 말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더 이상의 정당화를 찾을 필요도 공간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유혹적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대화와 고민이 종료되는 것이죠.

5. 결론:

이성의 무한 루프 문제 제기(C) -> 그 문제의 심각성 확인 및 해결책 용어 도입(A) -> 해결책의 실제 사례인 도덕적 발언(B)의 순서인 ④ (C) - (A) - (B)가 가장 적절합니다.

37.

When the concept of *expansion* gets mentioned, it is difficult to resist the urge to picture the Universe with a finite and growing boundary. Our natural instinct is to wonder what the Universe could possibly be expanding into.

- (A) In contrast to our inflating balloon or, say, a pipe leak that causes gas to spread into a room that exists in its own right, our expanding Universe is not spilling into another separate entity, nor even another dimension. It is the structure of space and time that stretches, a structure that has always existed, at least since the Big Bang.
- (B) Unfortunately, the only answer I can give you is the one that I am sure will satisfy you the least, but let me say it anyway: the Universe expands into nothingness. To be more accurate, the Universe does not expand *into* anything. It simply expands by itself within itself.
- (C) This structure or fabric of space and time is elastic and malleable. Just as it can pull us apart as we fall inside a black hole, it can also expand and cause anything and anyone embedded in it to move farther apart.

* inflate: 팽창하다 ** elastic: 탄력적인 *** malleable: 가단성이 있는

- ① (A) - (C) - (B) ② (B) - (A) - (C)
- ③ (B) - (C) - (A) ④ (C) - (A) - (B)
- ⑤ (C) - (B) - (A)

팽창'이라는 개념이 언급되면, 경계가 유한하고 늘어나는 우주를 상상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 어렵다. 우리의 타고난 본능은 우주가 가능한 한 어디로 팽창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B) 안타깝게도,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여러분을 가장 만족시키지 못하리라 확신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말해보자면 우주는 '무(無)'로 팽창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주는 그 어느 곳으로도 팽창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팽창할 뿐이다.

(A) 팽창하는 풍선이나, 예컨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방 안에 가스가 퍼지게 하는 파이프 구멍과는 다르게, 우리의 팽창하는 우주는 또 다른 분리된 독립체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또 다른 차원 속으로도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뻘어 나가는 것은 바로 공간과 시간의 구조, 적어도 빅뱅 이후로 항상 존재했던 구조이다.

(C) 공간과 시간의 이 구조, 혹은 조직은 탄력적이고 가단성이 있다. 우리가 블랙홀 안으로 떨어질 때 우리를 찢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또한 팽창할 수 있고 안에 파묻혀 있는 무엇이든 그리고 누구든 서로 더 멀리 떨어지게 이동하게 만들 수 있다.

1. 글의 구조

PS (Question → Answer / Concept Clarification)

우주가 '어디로' 팽창하는가라는 질문(Question)으로 시작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혹은 그 자체 내에서' 팽창한다는 답변(Answer)을 제시합니다. 이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풍선 비유와의 차이점을 통해 시공간 구조(Structure of space and time)의 개념을 정립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지시어 및 연결어 추론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 질문인 "what the Universe could possibly be expanding into(우주가 도대체 무엇 속으로 팽창하는가)"에 대해 (B)가 "the only answer I can give you(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답변)"라며 직접적으로 응답합니다. (A)에서 시공간의 '구조(structure)'를 언급하고, (C)가 "This structure(이 구조)"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상술하는 패턴입니다.

3. 난이도

중상 (우주론이라는 추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 개념 파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문과 답변의 짝짓기, 그리고 (A)의 마지막 단어 'structure'와 (C)의 첫 단어 'This structure'의 연결 고리가 매우 명확하여 논리적 순서를 잡기는 수월한 문항입니다.)

4. 글의 순서 예설

Step 1. [주어진 문장 → (B): 질문에 대한 역설적인 답변]

주어진 문장은 우리가 우주 팽창을 떠올릴 때 "우주가 무엇 속으로 팽창해 들어가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끝을 맺습니다. 이에 대해 (B)는 "실망스럽겠지만, 우주는 무엇 속으로도 팽창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주는 그저 '무(nothingness)'로 팽창하며, 정확히는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팽창할 뿐이라는 역설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Step 2. [(B) → (A): 직관적 비유와의 대조 및 새로운 개념 도입]

(B)의 추상적인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A)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풍선'이나 '가스 누출' 비유를 가져와 대조(In contrast)시킵니다. 풍선은 이미 존재하는 방 안의 공간을 차지하며 커지지만, 우주는 다른 차원이거나 별개의 실체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주를 담는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structure of space and time)'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Step 3. [(A) → (C): 시공간 구조의 특성 상술]

(A)의 끝에서 언급한 '시공간의 구조'를 (C)의 첫머리에서 "This structure(이 구조)"로 받아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구조는 고무줄처럼 탄력적(elastic)이고 유연해서, 블랙홀 안에서 우리를 찢어놓을 수도 있고, 팽창을 통해 모든 것들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구체적인 물리적 특성을 설명하며 마무리합니다.

5. 결론:

우주가 팽창하는 대상에 대한 질문(주어진 문장) → 그에 대한 답변: 무엇 속으로도 팽창하지 않음(B) → 일반적 비유와의 차이점 및 '구조' 개념 도입(A) → 그 '구조'의 탄력적 특성 설명(C)의 순서인 ② (B) - (A) - (C)가 가장 적절합니다.

38.

According to McNeil and Duncan, gesture is different from language in that it does ~~not~~ present the speaker with such choices.

Scholars have demonstrated that the gestures hearing people produce while they are speaking are systematically made at the same time with speech such that language and gesture must be considered "co-expressive". This tightly integrated pairing of language and gesture enables speakers to conceptualize and formulate their thoughts in terms of both the "categorical" requirements of language, and the "imagistic" possibilities of gesture. (①) For example, in describing an event, one must decide if the event has been completed or is ongoing if the language being spoken at that moment has a verbal affix for each meaning and one or the other must be chosen. (②) This kind of choice is characteristic of language as a semiotic system. (③) Instead, it offers a kind of glue, which helps unite linguistic elements in a larger semiotic expression, which, as a whole, shares important characteristics with the represented objects. (④) In this view, speech and gesture are not redundant nor is one a "translation" of the other. (⑤) Rather, the minimal processing unit for the expression of thought is a combination of the two: it is "imagistic-categorical" in nature.

* affix: 접사 ** semiotic: 기호의

학자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청인)이 말하는 동안 보여 주는 제스처가, 언어와 제스처를 반드시 '공동 표현적'이라고 간주해야 할 만큼, 말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이러한 언어와 제스처의 단단히 결합된 한 쌍은 화자가 언어의 '범주적' 요구와 제스처의 '심상적' 가능성 두 관점 모두에서 자기 생각을 개념화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만약 그 순간에 말해지고 있는 언어가 각 의미에 대한 동사에 붙는 접사를 가지고 있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한 사람(화자)은 그 사건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진행 중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 기호 체계로서 언어의 특징이다. McNeil과 Duncan에 따르면, 제스처는 화자에게 그러한 선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와 다르다. 대신에, 그것은 일종의 접착제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언어적 요소들을 더 큰 기호 표현 안에서 결합하도록 돕고, 그것은 전체로서 표현된 대상과 중요한 특징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과 제스처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번역'도 아니다. 오히려, 사고 표현을 위한 최소 처리 단위는 이 둘의 결합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심상적-범주적'이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언어와 몸짓은 '공동 표현(co-expressive)' 관계이며, 언어의 '범주적(categorical)' 특성과 몸짓의 '이미지적(imagistic)' 특성이 결합되어 사고를 형성한다는 일반적 원리를 먼저 제시합니다. 이후 언어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선택'의 예시를 들고, 몸짓은 그런 선택 대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대조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지시어 및 연결어 추론

가장 강력한 단서는 ③번 뒤에 나오는 'Instead(대신에)'입니다. 영어

문장에서 'Instead'는 대개 앞 문장에 '부정어구(~가 아니다, ~하지 않는다)'가 나올 때, 그에 대한 대안을 설명하며 등장합니다. 주어진 문장에 있는 "does not present(제공하지 않는다)"가 이 'Instead'와 완벽한 짝을 이룹니다.

3. 낱어도

상 (범주적, 이미지적, 기호 체계 등 추상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선택(choices)' → '몸짓은 그런 선택이 없음(제시문)' → '대신(Instead) 연결 고리 역할'이라는 논리적 징검다리를 찾는다면 명확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문장 삽입 예설

Step 1. [주어진 문장의 역할 파악]

제시문 "According to McNeil and Duncan, gesture is different from language in that it does not present the speaker with such choices."는 몸짓이 언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런 선택(such choices)'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밝힙니다. 여기서 'such choices'는 앞부분에서 언급된 언어의 구체적인 선택 사항들을 가리킵니다.

Step 2. [지문 흐름 및 논리적 관계 분석]

- (①) 뒤: 이벤트를 묘사할 때 완료형인지 진행형인지 '결정(decide)'해야 하고, 특정 어미를 '선택(chosen)'해야 한다는 언어의 특성을 예로 듭니다.
- (②) 뒤: "This kind of choice(이런 종류의 선택)"가 언어 기호 체계의 특징이라고 정리합니다.
- (③) 앞까지는 '언어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끝납니다.
- (③) 뒤: "Instead(대신에), 그것(몸짓)은 일종의 풀(glue)을 제공하여..."라며 몸짓의 기능을 설명합니다.

Step 3. [주어진 문장을 넣어 문맥 흐름 최종 확인]

- (②) 뒤 문장에서 언어의 선택적 특징을 마무리한 후,
- (③) 위치에 "하지만 몸짓은 (언어와 달리)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제시문을 넣으면,
- (③) 뒤의 "대신에(Instead), 몸짓은 요소를 결합하는 풀 역할을 한다"는 문장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즉, '선택의 부재'와 '연결의 역할'이 대조를 이루며 몸짓의 본질을 설명하게 됩니다.

5. 결론:

언어의 '선택' 속성을 설명한 직후에 그와 대비되는 몸짓의 '비선택적' 속성을 언급해야 하므로, 뒤따르는 'Instead'와 호응하는 ③번이 정답입니다.

39.

1.2점
 Nonetheless, for most outsiders even **completely transparent practices** do not lift the veil behind which such forms of knowledge are hidden—without the relevant training and acquisition of skills, which often take many years, one simply cannot make sense of the information that is being shared.

To acquire expert knowledge, one needs to become a member of the relevant group of knowledge bearers, for which I will use the term “epistemic communities.” (①) A newcomer learns from experts and is socialized into the common practices of the relevant epistemic community. (②) Often there are admittance processes, combined with tests of a candidate’s abilities. (③) In the premodern era, epistemic communities were often kept secret, with strict tests of loyalty for new members, not least because of fears that specialized knowledge would fall into the “wrong hands.” (④) Some traces of these older practices may still be present today, but on the whole, the ideal has shifted to openness among the members of epistemic communities, and also, to some extent, toward outsiders. (⑤) Other, **more active strategies** are needed to make certain forms of knowledge as “accessible” as is realistically possible. [3점]

* transparent: 투명한 ** epistemic: 지식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 보유자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나는 '지식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새로 온 사람은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며, 관련 지식 공동체의 공동 관행에 사회화된다. 자주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시험과 결합한 입회 절차가 존재한다. 전근대적인 시대에는, 지식 공동체가 자주 비밀에 부쳐졌고, 신입 구성원에게 엄격한 충성심 시험이 있었는데,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잘못된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오래된 관행의 일부 흔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상(理想)은 지식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개방성,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는 외부인을 향한 것으로 옮겨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부인에게는 완전히 투명한 관행조차도 그러한 형태의 지식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장막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데, 즉 자주 수년이 걸리는 관련 교육과 기술의 습득 없이는 공유되고 있는 정보를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다. 특정한 형태의 지식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방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 글의 구조

PS (Problem → Solution / Reality check)

지식 공동체에 가입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먼저 설명합니다. 과거의 폐쇄성에서 현대의 '개방성(Openness)'으로의 변화를 언급한 뒤(④),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식의 장벽(Problem, 제시문)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인 전략(Solution, ⑤ 뒤)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역접의 연결어와 논리적 공백 파악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제시문의 'Nonetheless(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상황을 끌어내야 합니다. ④번 문장에서 현대 지식 공동체가 외부인에게도 '개방(openness)'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했으므로,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Nonetheless) 외부인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3. 낱어도

증상 (지문 전체의 흐름이 매우 매끄러워 보이기 때문에 'Nonetheless'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⑤번 자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단순히 '정보 공개'와 '실질적 이해'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문장 삽입 해설

Step 1. [주어진 문장의 역할 파악]

제시문 "Nonetheless, for most outsiders even completely transparent practices do not lift the veil... without the relevant training... one simply cannot make sense of the information..."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transparent)되어도 훈련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인지적 장벽'을 강조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개방성(openness)'이라는 이상과 대조를 이루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문장입니다.

Step 2. [지문 흐름 및 논리적 관계 분석]

(③) ~ (④): 과거에는 지식 공동체가 비밀스러웠지만, 현대에는 멤버들 사이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개방(openness toward outsiders)되는 방향으로 이상이 바뀌었음을 설명합니다.

(⑤) 뒤: "Other, more active strategies are needed(다른, 더 능동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정보를 두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논리적 연결의 필요성: ④번에서 '개방'을 말했는데, ⑤번 뒤에서 갑자기 '추가적인 능동적 전략'을 요구한다면 논리적 비약이 생깁니다. '개방은 했지만(④),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제시문). 그래서(⑤ 뒤)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Step 3. [주어진 문장을 넣어 문맥 흐름 최종 확인]

(④) 뒤: ...the ideal has shifted to openness among the members... and also, to some extent, toward outsiders.

(⑤) Nonetheless, for most outsiders even completely transparent practices do not lift the veil... without the relevant training... one simply cannot make sense of the information...

(⑤) 뒤: Other, more active strategies are needed to make certain forms of knowledge as “accessible” as is realistically possible.

⑤번 자리에 제시문을 넣으면, 지식 공동체가 외부인에게 문을 열었다는 '형식적 개방(④)과 전문 지식이 가진 '내용적 난해함(제시문)' 사이의 모순을 보여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접근성 강화 전략(⑤ 뒤)'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40.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arstensen's (1995)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looks at individuals' goals as a lifelong process that strengthens and matures with ageing. In relation to his motivational conceptual framework, Higgins (2014) proposes that motivation may even attain its highest levels in the later stages of life, subject to the balance and organisation of one's goals in relation to life prioritie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more recent research looks deeply into additional factors influencing well-being in later adulthood, particularly emphasising the role of self-worthiness, and the overall positive impact of developing a well-rounded self-view in life course transitions. Together, these studies suggest that both goal alignment and a positive self-perception are crucial for enhancing motivation and overall well-being in later life. In fact, third-age learners exhibit a higher degree of selectivity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which goals to pursue and how to allocate their resources towards those specific priorities. Older adults demonstrate a stronger sense of life purpose and self-fulfilment. They do it their way, and their way is an accumulation of winning and personalized combinations in effectively relating motives all together at different degrees according to their life contexts.

* alignment: 정렬

As goals mature over the course of one's life, older adults become more selective and (A) their goals according to priorities, sustaining motivation and well-being through a(n) (B) self-view.

- | | | |
|---------------------|-------|------------------|
| (A) | | (B) |
| ① coordinate | | objective |
| ② coordinate | | favorable |
| ③ organize | | inconsistent |
| ④ disassociate | | positive |
| ⑤ disassociate | | indefinite |

Carstensen(1995)의 사회 정서적 선택성 이론은 개인의 목표를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강화되고 성숙해지는 평생의 과정으로 본다. Higgins(2014)는 자신의 동기 부여의 개념적 틀과 관련하여, 동기 부여는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개인 목표의 균형과 조직화 여부에 따라, 심지어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더 최근의 연구는 성인기 후반부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철저히 조사하며, 특히 자아 존중감의 역할과 생애 과정 전환기에 균형 잡힌 자기관을 발달시키는 것의 전반적인 긍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종합해서, 이러한 연구들은 목표의 정렬과 긍정적인 자아 인식 모두 인생 후반에 동기 부여와 전반적인 안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제3 연령기 학습자들은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그리고 그러한 특정 우선순위에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정도의 선택성을 보인다. 노인들은 더 강한 삶의 목적의식과 자기 충족감을 보인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내며, 그들의 방식은 그들의 삶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모든 동기를 효과적으로 결부시키는 데 있어 성공적이고 맞춤형 조합들의 축적이다.

1. 글의 구조

GS (General → Specific)

나이가 들면서 목표가 성숙해진다는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는 일반적 이론(General)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노년층이 어떻게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통해 높은 동기 수준과 웰빙을 유지하는지 구체적인 양상(Specific)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2. 정답 도출 패턴

인과 관계 및 핵심 키워드 재진술

지문 내에서 "goal alignment(목표 정렬)", "organisation of one's goals(목표의 조직화)"는 요약문의 (A) coordinate(조율하다/조직하다)와 연결됩니다. 또한 "positive impact of developing a well-rounded self-view(원만한 자아상 발달의 긍정적 영향)", "self-worthiness(자존감)" 등은 요약문의 (B) favorable(호의적인/긍정적인)과 일맥상통합니다.

4. 난이도

하 (지문 속에 'positive', 'organisation', 'alignment'와 같은 핵심 단어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A)에서 'disassociate(분리하다)'와 같은 반대 의미의 단어만 잘 걸러낸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3. 요약문 해설

Step 1. [핵심 논리 파악: 목표의 조율]

지문에 따르면, 노년층은 인생의 우선순위에 맞춰 어떤 목표를 추구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더 높은 선택성(selectivity)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목표를 정렬(alignment)하고 조직(organisation)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A)에는 '조율하다, 조직하다'의 의미를 가진 coordinate가 적절합니다.

Step 2. [핵심 논리 파악: 긍정적 자아상]

노년기의 웰빙을 결정하는 또 다른 축은 자아 인식(self-perception)입니다. 지문은 "well-rounded self-view(원만한/다각적인 자아상)"와 "positive impact(긍정적 영향)"를 강조합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self-worthiness)과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동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B)에는 '긍정적인, 호의적인'이라는 뜻의 favorable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Step 3. [최종 요약 및 검토]

요약문 해석: 인생 행로에서 목표가 성숙해짐에 따라, 노인들은 더 선택적이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를 조율하며(coordinate), 호의적인(favorable) 자아상을 통해 동기와 행복을 유지한다.

4. 선택지 대조:

- ① coordinate objective: '객관적인' 자아상은 지문의 '긍정적/원만한(positive/well-rounded)' 맥락을 다 담지 못합니다.
- ② coordinate favorable: (A)와 (B) 모두 지문의 핵심 키워드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정답)
- ③ organize inconsistent: '일관성 없는' 자아상은 지문의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 ④ disassociate positive: 목표를 '분리/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조직'하는 것이므로 (A)가 틀립니다.

5. 결론:

노년층은 우선순위에 맞춰 목표를 체계적으로 조율(coordinate)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favorable)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므로 ②번이 가장 적절합니다.